

칼럼

글로벌 리더의 조건



서정건
정치외교학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각 사업단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 목표를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서정건(정치외교학) 부단장에게,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에 대해 들어봤다.

연재순서

- 1회 :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
2회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현장연수와 실천봉사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21세기형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교양리포트⑪
[글쓰기 1]

언어로 구축하는
쾌락의 세계



권현형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글쓰기 1’은 대학생이 생애 최초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 속에 무한한 서사와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글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합평을 해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글을 다듬고,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국제 사회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키운다

이번 2014년 2학기부터 향후 5년간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국제화 특성화 사업에 우리 학교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에서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의 여러 교수들이 지난 4월 수차례의 회합과 논의를 거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연구 및 교육 비전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인류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21세기 지구화 시대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마땅히 인류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란 점에 대해 쉽게 동의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인류 사회’라는 화두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 예를 들어 복지, 고령화, 다문화, 경제적 불평등, 연금, 환경 등의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겪었거나, 다루고 있는 공통의 이슈다. 또한 국제 개발과 협력,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는 우리의 경험을 인류 사회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외교학과 주도의 글로벌 시민사회, 글로벌 격차해소, 그리고 국제학과 주도의 글로벌 개발 및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네 개의 영역을 핵심 축으로 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특성화 사업의 핵심 축으로 지정했다.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21세기형 리더 양성이 목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특정 분야 인증 프로그램은 또한 각각 네 가지의 역량에 집중한다. 인문학 소양 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교과목 위주의 대학교육 강화, 취업·진로·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실천 및 봉사자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에서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는 이처럼 인문학 훈련을 받은 인성은 사회과학적 분석력·통찰력을 갖추고, 해외연수와 취업특강 등을 통한 잠재력 개발 과정과 사회봉사·현장 실천의 단계를 거치며 만들어



진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의 국제화 단계와도 닮아 있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화과정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이제는 후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롤 모델이 될 여지가 충분한 단계에 와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국제화의 변화 방향 또한 하향식 및 정부 주도 경제 원조 범주를 넘어서 상향식 및 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처럼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가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화 사업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21세기형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 국제화라는 말은 흔한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실상 어느 정도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개념의 국제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글로벌 사업단의 가치와 비전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에게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안보와 무역, 평화와 교류 등 국제적 이슈는 우리에게 있어 바로 현실적인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온 지 오래다.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인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국제화 교육은 언어, 기술, 지식 등 부분적 접근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왔는데 비해 갈수록 지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는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국제화 교육이 부분과 부분을 맞추어 전체를 그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고 체계와 행동 양식에 대한 교육이 그것인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 사회’라는 주제가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이나 개인적 체함을 강조하는 국제화 교육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인류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항상 고민하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사회’를 고민하는 인재,
국제문제 해결의 열쇠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융합형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다문화, 고령화, 경제 민주화, 시민사회, 글로벌 협

력 및 글로벌 비즈니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인성과 사회과학적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외 현장 연수와 사회 공헌 훈련을 받은 실천형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업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은 재정을 집행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Money can’t buy everything”이다. 풍성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경험을 돕고 취업·진로 특강을 마련하더라도 절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오히려 이전처럼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와 결실을 거두는 글로벌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 주도, 현장 중심, 파트너 관계 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재정 지원 없이 학생들에게 세계와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처럼 필요하나 충분치 않은 재정 지원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는다면 우리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들이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쓰기를 강조한다. ‘나의 언어’로 ‘나와 세계’를 표현하기가 글쓰기의 목표이나 나만의 언어를 갖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글쓰기 과정의 서사적 시퀀스(sequence)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글쓰기의 소중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의 역설적 진실 가운데 하나는 작디작은 가치를 통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담론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좋은 글이 찾아오는 경험을 학습하게 된다. 자신이 누군지 글로벌 쓰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비참을 피하기 위해, 글쓰기의 지속적 수행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담지 않은 주제적 인간이 되기 위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색하고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글쓰기’은 강조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함,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적이다. 자신의 처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인문학 수업, 교양 수업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출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속한 단체, 지역사회, 국가 등 바깥 세계로 시선을 확장시켜가도록 이끄는 게 휴머니티스 교육의 중요 프로젝트라면 ‘글쓰기’은 그 첫 단계다.

효율성과 가속화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

는 사회에서 글쓰기를 통해 잃어버리거나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자가 자신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는 강좌다. 글쓰기에 대한 공포와 억눌려 있던 자존감을 스스로를 치유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글쓰기 강의의 핵심이다.

서로의 글에 피드백을 주는 경험을 통해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우정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보게 하여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한다. 나와 다른, 타자의 문제에 대한 흥미와 열린 시선은 세계를 확장하게 한다. “문체는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뷔퐁의 말처럼 글을 써서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꾀하는 것도 글쓰기 교육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나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멈춤 없이 사색하고 그 가치를 글로벌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때 글쓰기 교육의 궁극이 실현될 것이다. 전자책이 나와도 종이책의 주름진 근육, 예민하게 접힌 모서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이책의 존재 이유와 글쓰기의 존재 이유도 다르지 않다. 글쓰기는 그 어떤 것에 복무하지 않아도 중요한 가치와 목적성을 지닌다.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읽고 사색하고 쓰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글쓰기의 영감은 마그마처럼 저절로 흘러넘치지 않는다. 읽기와 사색과 쓰기를 멈추지 않을 때 언어로 구축하는 세계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될 것이다.